

부산 불교계 연등축제 준비 시작

2월 13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결성법회 창작등 경연대회, 용두산 연등문화제 계획 발표

부산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위한 봉축위원회 결성법회를 가졌다. 부산연등축제 봉축위원회는 2월 13일 부산 영주동 코모도 호텔에서 '부산연등축제 결성법회'를 갖고 봉축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법회에는 봉축위원회 대회장 장영 스님, 봉축위 상임부대회장 범민 스님, 이윤희 봉축위원회 부회장, 봉축위 수석부대회장 화산 스님,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 등 부산 지역 스님과 불자, 지역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위원회는 법회에서 '2012 부산연등축제 봉행 계획'을 발표했다. 봉축위는 양정 청소년수련원에서 제1회 '창작등 제작 강습회'를 10일, 11일, 17~18일 4일에 걸쳐 진행했다. 또한 25일까지는 봉축슬로건을 공모할 계획이다. 창작등 제작 강습에는 30여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동참했으며 백창호 한국전통등 연구원 원장이 직접 지도에 나섰다.

또한 4월 30일까지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창작등등을 선별하는 '제3회 창작등 경연대회'의 참가 접수가 진행된다. 5월 4일 저녁 6시 30분부터는 부산역 광장에서 봉축답과 연등을 밝히는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이 봉행될 계획이다. '용두산 연등문화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용두산 공원에서 진행된다.

5월 12~20일에는 대형 장엄등과 각종 연등이 불을 밝힌 가운데 연꽃 만들기, 전래놀이한마당, 단주 만들기, 솜사탕만들기, 소원지 불이, 경전타분체합 등 다양한 시민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연등축제의 메인 행사인 '2012 부산연등축제 봉축연합대법회와 제등행진'은 5월 20일 구덕종합운동장에서 봉행된다. 제등행진 구간은 구덕운동장에서 용두산 공

원까지 3.8km이며 제등행진 회향 장소인 용두산 공원에 회향무대가 마련된다. 회향 무대에서는 레이저와 불꽃쇼, 특수조명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쇼가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7월 중에는 '2012 부산연등축제' 평가회와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봉축위원회 대회장 장영 스님 "때 묻지 않은 밝은 마음으로 봉축법회에 임하도록 아름답게 승화되도록 하자"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 이재진 부산지시장



부산 봉축위원회 대회장 장영 스님이 연등축제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고 있다.

불교의 과거·현재·미래가 한 눈에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호남지역 6개본사 등 참여

한국불교의 문화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엑스퍼트는 3월 16~18일까지 3일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2012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2010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불교문화를 소개하고, 불교관련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문화산업전시박람회이다. 이곳에서는 한국불교의 역사, 특히 호남지역 대표 고찰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범불교위원회와 고불총림 백양사, 조계총림 송광사,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해 금산사, 화엄사, 대흥사, 선운사 등 호남지역 6대 본사와 광주지역 사찰과 신행단체 등이 참여해 호남지역 문화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는 전시장내 호남지역 6대 본사의 전시장을 설치한다. 전시장에는 각 사찰 체험관을 설치해,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와 불교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소개한다. 여기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세계불교대회를 홍보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각 사찰의 유적 둘러보기, 다도 차 만들기, 환경교육, 건기명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어린이 생태학교가 영광 불갑사와 광주 중심사에서, 8월 3일~5일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지리산마음캠프가 개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시장



지난해 개최된 불교박람회

또한 행사기간에는 참가자를 위해 불화소품전시회(벽월산방), 천연염색 의상전, 4대 본사(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의 법고 시연, 퍼러미타의 찬불가 공연, 골굴사의 선무도 시범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17~18일에는 순천 선암사(주지 설운)의 영산재 시연이 펼쳐져 전통불교문화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박찬희 담당자는 "한국불교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는 최대의 종교이지만, 그에 따른 관련 산업을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이다"라며, "이번 박람회는 불교산업과 문화를 육성하는 각 사찰 체험관을 설치해, 사찰 및 템플스테이 홍보와 불교의 과거와 미래의 모습을 소개한다. 여기에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세계불교대회를 홍보하는 공간도 마련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시장

거창군 삶의 쉼터, 정월대보름맞이 축제

거창군 삶의 쉼터(관장 도영)에서는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 532명을 대상으로 정월대보름맞이 기념행사를 9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이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식전공연으로 거창군 문화관광과의 협조로 거창국제연극제의 모태가 된 '소원성취 발원이요'라는 액놀이 퓨전국악공연을 펼쳤다. 분행사에서는 율놀이 대회가 노인과 장애인 이용자 16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펼쳐졌다.

이 밖에도 가훈쓰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한마음 회에서는 무료급식을 후원해 행사장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다.

삶의 쉼터 관장 도영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복지관 이용자들이 즐거움을 공유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은 스님

이 밖에도 가훈쓰기,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한마음 회에서는 무료급식을 후원해 행사장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다.

삶의 쉼터 관장 도영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복지관 이용자들이 즐거움을 공유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경남남부지사장 청은 스님

“부처님과 함께 배우는 환경 교육”

광주불교환경연, 문화체험 행사

광주 불교계가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상임대표 범민)은 2012년 4월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따라 마음따라(자따마따) 1박 2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6학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자연따라 마음따라'는 3월 24~25일 강진 백련사를 시작으로 4월 28~29일 합천 해인사, 6월 23~24 대구 유가사, 9월 8~9일 고창 선운사, 10월 27~28 안도 선홍사에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각 사찰의 유적 둘러보기, 다도 차 만들기, 환경교육, 건기명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어린이 생태학교가 영광 불갑사와 광주 중심사에서, 8월 3일~5일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지리산마음캠프가 개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시장

광주 불교계가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상임대표 범민)은 2012년 4월에 걸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연따라 마음따라(자따마따) 1박 2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초등학교 2학년~6학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자연따라 마음따라'는 3월 24~25일 강진 백련사를 시작으로 4월 28~29일 합천 해인사, 6월 23~24 대구 유가사, 9월 8~9일 고창 선운사, 10월 27~28 안도 선홍사에서 진행된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각 사찰의 유적 둘러보기, 다도 차 만들기, 환경교육, 건기명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어린이 생태학교가 영광 불갑사와 광주 중심사에서, 8월 3일~5일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지리산마음캠프가 개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시장

전주 혁신도시에 전법도량 개원 예정

김제 금산사 교구중회서 결의

300만 평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전주 혁신도시 내에 전법도량이 개원된다.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원행)는 2월 11일 전주 전법불교회관에서 2012년 1차 교구중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상정했다. 이미 2000여㎡의 계약을 마친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은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14년이후에 개원할 계획이다. 전법도량이 들어서게 될 전주완주 혁신도시

시는 300만평 가량의 택지에 9700세대 3만명이 거주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교구중회에서는 불기 2055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 올 연등축제 봉축위원회 구성 일정 등의 사업계획을 협의했다.

또 올해 봉축기간동안에는 지난해 처음 무대에 올려진 후 많은 호응을 얻은 전북도립국악원과 전북지역의 불교연합합창단이 참여하는 '천년의 보물, 팔만대장경' 공연이 다시 선보인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저소득 독거노인 사랑의 이불 지원

지구촌 공생회 전북지부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대표 이사 송월주) 전북지부(지부장 강만근)는 홀몸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차림이불 전달식을 2월 10일 전주시청에서 가졌다.

전주시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역 후원회원이 마련한 6만원 상당의 차림이불 300채 (시가 1200만원 상당)를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해 도시락배달로 중식을 지원받는 저소득 어르신 150명과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일상생활을 지원 받고 있는 어르신 150명 등 300명이다.

지구촌 공생회 관계자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지구촌공생회는 2003년 금산사 회주 송월주 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구호NGO 단체로서 국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해외 6개국의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원만한 저소득 어르신 150명과 전주시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일상생활을 지원 받고 있는 어르신 150명 등 300명이다.

지구촌 공생회 관계자는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지구촌공생회는 2003년 금산사 회주 송월주 스님이 창립한 국제개발구호NGO 단체로서 국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힘쓰고 있으며, 해외 6개국의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임진년 고창 선운사 순례 줄 잇는 까닭은

대웅보전 천장 흑룡 불화 인기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전북 고창의 선운사(주지 범만)에 불자들의 성지순례가 줄을 잇고 있다. 바로 선운사에 흑룡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선운사 대웅보전 천장을 장엄하고 있는 불화에 흑룡, 청룡, 황룡, 백룡이 승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 흑룡의 해를 맞아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운사는 갑자기 늘어난 순례객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또한 흑룡의 해 윤달에 성지순례를 하겠다는 문의가 쇄도해 선운사에서는 순례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보물 제290호로 지정된 대웅보전(大雄寶殿)은 선운사의 중심 전각으로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구조는 다포(多包) 형식이지만 맛배 지붕을 얹은 조선 중기의 건물이다. 대웅보전은 측면에는 공포가 없는 대신 기둥 두 개를 높이 세워 대들보를 받치도록 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고 건물의 앞 뒤 폭은 오히려 좁아서 옆으로 길면서도 안정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조선 중기의 건축물답게 섬세하고 다포의 짜임새가 장식적이다.

선운사 관계자는 "임진년 흑룡의 해, 윤달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천년의 신비가 살아 숨 쉬는 선운사에서 흑룡을 보고 위풍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시장



선운사 대웅보전의 삼존불

암환자를 위한 특별 메시지



저는 천의선도 창도자며 대체의학 연구가 삼봉 김영생 스님입니다. 저는 13세부터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육경신 정진수련에 입신해서 82세가 된 오늘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듯이 가는길은 없을까하는 상념중에 19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신 정진수련중에 천신의 계시를 받고 너무나 황당무계한것 같지만 천신의 메세지이니 믿고 내 주변에 맡기합

천의선도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만천하에 공개 하면서

환자 몇분에게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복용시켰더니 3,4개월이 지나 몸이 편안하다 하기에 병원진찰을 받아보니 암이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소문에 따라 저를 찾아오는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데 한사람도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전립선,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일주일에 1번씩 4,5차례 기를 넣어 드렸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데 재발된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나는 한국의 민중의술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주 주지사님의 초청을 받고 1998년 7월초에 미국에서 오하이오주 주립대학 병원에 가서 담당의사들의 병증제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5일간 했는데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나온 환자가 오후에 공원 산책을 혼자서 하고 돌아왔다고 담당 의사가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합성을 지르며 천의선도 치료법을 전수받았습니다.

7월 14일에는 오하요주 주지사님이 한국의 민중의술이 세계에 으뜸이라고 찬사를 하시며 감사패를 주셨고, 17일에는 콜럼버스 시장님이 명예시민장도 주셨습니다. 2011년 월드코리아에서 세계속의 한국인 자랑스런 민중의술 대체의학 부문 대상도 받았습니다 만든 제 나이가 82세, 나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이세상에 전무후무한 천하제일의 천의(天醫) 하늘이 준 의술을 물어두고 갈순없어 이 세상에 공개해서 한가정에 한사람씩 천하제일의 명사가 있다면 건강한 가정에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일반에 공개하면서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을 분 기다립니다. 나의 안내문에 의심이 나거든 강동구 천호2동 333-45 전화 02-568-4955 대가연 통증의원 원장 의학박사 심요택 박사님을 만나 보십시오. 심박사님은 암 환자를 대체의학의 자연요법을 체험해 보시고 신화같은 기적이라고 감탄하시며 시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일반인이 자기 가정을 돌보기 위해 천의선도

대체의학을 전수받는 분에게는 일체 전수비를 받지 않습니다.

책값 50만원에 필요하면 은용해기 35만원, 매선침 100개 내지 150개 구입하면 준비완료.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데 소요시간은 천의선도를 전수 받고 실습시간 육각수를 만드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환신 받는데 10분, 5시간이면 넉넉하고 암환자를 치료 하려면 육경신수련 60일에 하루씩 6회 참석 수련하시면 됩니다. (오방신장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의선도를 전수받으십시오.

**천의선도 태증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배래**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봉빌딩 403호

연락전화 : 010 - 4933 - 4528